

84.4.28

職場 여성 폭언 폭행 호소 많아

「여성인 전화」 분석

직장내에서 부당한 폭언과 폭행 강간 그리고 결혼 퇴직압박을 받고 있다는 여성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 3년간 직장여성 상담창구에 쏟아진 2백57건의 여성 상담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폭언 폭행 강간포함) 문제가 29%, 결혼퇴직 문제가 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회사에 근무하는 A양은 출근 후 신분을 보다가 남장미로부터「건방지게 여자가 먼저 신분을

보느냐. 내 마누라 같은면

반쯤은 죽었다」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상담을 청해

온 경우. 백화점 판매원 B양은 매장에서 물건이 도난당하자 배상을 요구하는

남성노동자...「결혼퇴직」강요도 여전

상사에게 부당함을 항의했다가 「개값을 물어줄테니 어디 한번 맞아봐라」며 심한 구타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것을 호소해왔다. 폭언 폭행뿐 아니라 상사등이 직장생활을 좌절 짓을 미끼로 강간흔

인방자간음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이 실시되는데도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하는 경우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86년에 8건, 87년에 20건, 88년에는 41건이나 됐다.

사업주가 여성노동자를 채용하면서 결혼퇴직자서를 받거나 취업규칙에 결

혼퇴직을 명문화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지만 결혼 임

신퇴직이 관행으로 이뤄지거나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

대학에 근무하는 C양은 결혼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 사표제출관례를 거부했지만 그후 상사로부터 계속 정신적 고통과 협박이로 퇴직을 강요받고 있다

생활의 지혜

가정

환경오염바는 것만은 아 분리 수거를 수 있다.

각종 전자시계 전자계 메라등에 사용된 수은건 양오염을 유발하므로 분 정은것과 다른것을 분리

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전화는 또 직장여성화교를 운영, 업종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단결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토록 하고 조합간부교육 조합원 교육등을 실시하기로 했다.